



생명의 기적

accesstolife

매그넘 & 글로벌펀드 세계순회사진전
2011.12.23 - 2012.3.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매그넘 8명 사진작가, 수백만명의 새삶에 기여하다!

생명의기적 展 은 지구마을 인류의 공존과 공생을 노래하는 세계순회사진전이다. 국제적 규모의 멀티미디어 전시로써 사진작품 550점, 9개의 다큐멘터리 필름, 온라인 플랫폼으로구성되었고 5억 6천만 명이 미디어를 통해 이 전시회를 경험했다. 이 전시회는 글로벌펀드의 기금조성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수백만명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www.accesstolife.seoul.kr

매그넘작가 스티브 맥커리 짐 골드버그 요나스 벤딕센 래리 타월 파울로 펠레그린 일라이 리드 알렉스 마졸리 질 페레스

주최: MAGNUM The Global Fund YTN 1 중앙일보 주관: (주)유로크레온/한국매그넘에이전트 (주)케이온컴퍼니, 갤러리아트스페이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미디어협찬: 사진예술, P+KOTO+, 월간사진, 미술세계 후원: 한국사진기자협회 협찬: Nikon KOREAN AIR 삼성전자가 *네이버에서 매그넘사진전 을 검색하세요. 문의 02-2277-2438

YTN

2012년 1월 <제 96 호>

•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02-398-8000 • 제보: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200-2424



시청률 1위

ch24 YTN

‘YTN 브랜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

02 신년사

‘YTN 브랜드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 _ 사장 배석규

04 2012 어젠다

2012 어젠다 ...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
‘행복을 나누는 기쁨’ _ 박중승

06 커버스토리_창사이후 최장기간 시청률 1위

- ① YTN 시청률 '두 달 이상 연속 1위'
- ② 열려라! 디지털 24번 _ 김호성

08 핫이슈 I_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 ①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 ②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 _ 김국진

12 핫이슈 II_보도국, 새롭게 출발합니다!

- ① 윤두현 보도국장에게 듣는다!
- ② 출범! 지역취재본부

16 핫이슈 III_사이언스TV, 편성의 틀을 깨다

- ① 2012년 2월 과학전문채널 YTN science가 달라진다! _ 김신영
- ② YTN 사이언스의 새얼굴
- ③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모두 모였다

20 ZOOM IN_출발! 공채 14기

- ① 김주영씨 맞으시죠? 합격이시구요... _ 김주영
- ② 공채 13기가 14기에게 _ 김평정
- ③ YTN의 새얼굴 공채 14기

24 우수 프로그램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정애숙의 공감> _ 정애숙

26 현장취재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취재기 _ 이기정

28 프로그램제작기

YTN 신년특집 <한류, 희망을 품다> _ 홍성노

30 콘텐츠확대

- ① YTN 웨더를 만나면 내일은 맑음 _ 임채훈
- ② YTN라디오 - 뉴스! 정면승부 _ 박용호

34 견학기

역시 YTN! _ 김현지

35 포토뉴스/게시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YTN 가족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모두 나름대로 설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도 한해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목표한 방향을 향해 함께 힘과 뜻을 모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무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종무식 때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회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 성장시키는 쪽에 힘과 뜻을 모아 주시라고 먼저 당부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 후반대로 기록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은 경쟁체제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주 수입원인 광고부문에 지난해 정도의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편출범 이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TV시청률 1위를 그 희망의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결과로 얻어낸 이런 성과를 더욱 유지 확산시켜서

대한민국 제1의 뉴스채널로 YTN의 브랜드를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대상품이자 주력상품은 뉴스이고 그 뉴스가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인정받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게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도 역시 총선과 대선, 런던올림픽,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 위기상황극복 등 YTN의 뉴스가치를 평가받을 만한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공정한 보도, 신뢰받는 보도,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해 차별화된 뉴스콘텐츠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YTN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국을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개발과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도 병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보생산과 가공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NS와 양 방향 소통으로 대변되는 스마트시대에 맞춰 시청자와 소통하고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달 중이면 회사는 새 식구들을 맞이합니다.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인력충원에 회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만한 인력운용은 오히려 회사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신중을 기하고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외동포 참정권시대를 맞아 YTN위성방송도 글로벌시대에

맞게 YTN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YTN의 생존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신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대무기인 YTN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그러한 사업발굴은 반드시 YTN브랜드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송사라는 낮은 자세로 일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안 된다는 마음보다는 된다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열린 마음 역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상암동 시대를 열어간다면 YTN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서 영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의 역할로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YTN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승천하는 용처럼 YTN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2 사장 배석규



龍



2012 YTN Agenda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

YTN은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 어젠다를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로 정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기쁨’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나눔입니다. 풍족해진 물질 속에서 더욱더 물질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의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 점점 더 각박해지고 상처입는 이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웃는 사람의 미소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그것일 것입니다.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처음 서울역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너무 공개된 장소가 아닌지, 과연 그분들이 맞이방에서 결혼식을 올릴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당사자분들도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님도 맞이방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에 대해 물어보시고 내용을 알고는 결혼식을 지켜보며 축복해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모여 조금씩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거행되면서 '나누는 행복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이방 결혼식'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테마로 하여 매분기마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통하여 따뜻해질 수 있는 계기에 이 행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종승 서울역장



박종승 서울역장 주례로 신랑 김이스카칸씨와 신부 김은미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서울역에서는 나눔의 문화 실천을 위해 분기마다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



YTN 시청률 '두 달 이상 연속 1위'

**종편 포함한 케이블채널 전체 순위에서
종편 개국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연속 1위'
새해에도 '연속 1위 기록' 계속 이어져**

종편과 신규보도 채널 모두를 포함한 케이블 전체 시청률 순위에서 YTN이 두 달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YTN이 종편과 신규보도채널이 개국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두 달 동안(4일만 2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GB는 YTN의 지난해 12월 한 달 평균시청률은 0.893%, 연속 1위를 차지한 12월 5일 이후 평균시청률은 0.907%를 기록해 종편사

들의 평균시청률을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AGB는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YTN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이 1%를 넘는 시간대가 449개를 기록하고, 시청률 2%를 넘는 시간대도 13개나 되는 등 평균시청률이 1%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GB측은 YTN시청률이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과 2일에도 1위를 기록해 '연속 1위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청률 조사기관 TNmS 조사 결과에서도 YTN은

시청률 연속 1위 기록인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당시의 15일과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의 13일,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의 8일을 넘어 1994년 YTN 창사 이후 최장기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또 다른 시청률 조사기관 TNmS 조사 결과에서도 YTN은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해 천안함 침몰과 이라크 전쟁 때 기록한 '연속 9일'을 기록을 넘어섰다. YTN은 '연속 16일' 1위를 기록한 기간 동안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이 AGB 0.877%, TNmS 0.814%로 높게 나타나 종편과 신규보도채널의 시청률을 훨씬 앞섰다. 특히 '김정일 사망 특보'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9일 12시부터 4시간 동안 시청률은 TNmS 2.174%·AGB 1.877%로 올랐고, 12시 28분에는 순간시청률이 3.197%(AGB 유료가구 대상 조사)까지 치솟았다. YTN은 앞으로도 한국의 뉴스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내외 뉴스를 전하기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3일(3일 2위, 4일 3위, 25일 2위)을 제외하고 두 달 이상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NmS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YTN 평균시청률은 0.801%를 기록해 종편과 신규보도채널 모두를 포함한 케이블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미디어미래연구소)된 YTN은 이 같은 '시청률 연속 1위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도, 그리고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YTN가치 새롭게 조명되다

열려라! 디지털 24번

해리포터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가려면 런던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 플랫폼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뉴스채널 YTN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케이블은 (MSO, 위성)은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은 IPTV라는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몇 번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 24번? 아쉽게도 YTN 24번의 시대는 아직 100% 열리지 않았다. 디지털 플랫폼이 완전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널 전쟁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맥루한식 정의를 한 단계 확장시키면 '미디어는 채널'이고 '채널은 곧 번호'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는 최근 종편과 추가보도채널 출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들의 선호도 높은 채널 확보 경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누가 살아 남았을까? 답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YTN이 있다.

아날로그 100%! 디지털은?

YTN 24. 이 번호는 창사 이래 YTN을 상징하는 우리의 얼굴이고, 명함이고, 이미지고, 메시지다. 천5백만 케이블 TV 가입가구 가운데 천백만 아날로그 가입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 번호다. 아날로그 채널만 놓고 볼 때, 전국이 하나의 번호로 통일돼 있는 채널은 3백여 개 PP 가운데 YTN이 유일하다. 예를 들어, 전주와 정읍 등 전북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전북방송의 경우 KBS는 8번, MBC는 9번이다. 최근 출범한 종편 4개 사 역시, 전국 단일 번호를 성사시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뉴스 Y는? 23번, 25번, 26번, 61번... 문제는 디지털 번호다. (MSO)의 YTN디지털 번호는 상당수 24번으로 아날로그 번호와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은 100% 아니다. 48, 50, 100, 150, 160, 301, 500번 등 제각각이다. 따라서 들쭉날쭉한 이들 번호를 24번으로 통일하는 작업은 YTN 매체협력팀에 부과된 지상최대의 과제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지난해 나왔다. 지난 12월 수도권 최대 MSO인 C&M이 YTN 디지털 번호를 45번에서 24번으로 변경했다. 새해 들어서는 전국 최대 MSO인 티브로드가 160번에서 24번으로 변경을 확정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의 케이블TV 가입 가구들이 디지털 24번을 통해 YTN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MSO는 CJ헬로비전과 HCN, CMB등 세 곳이다. 19개 개별 SO 가운데는 10개 SO가 디지털 24번을 송출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 디지털 가입 가구 수는 4백만. 아날로그 가구 수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IPTV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가입 가구수는 줄잡아 340만 가구, 100% 디지털이다. 그동안 위성방송을 통한 YTN 시청은 9번을 통해서 이뤄졌다. 바로 이 번호가 새해 들면서 24번으로 변경됐다. 위성방송을 통한 시청 역시 YTN의 상징인 24번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위성방송 출범 10년 만에 이런 쾌거다. 금상첨화, 바로 옆 25번에는 YTN 웨더가 배치됐다. KT, SK, LG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IPTV는 이미 지난해 4백만 가구를 돌파했다. YTN은 이들 IPTV 3사에 초기 론칭 당시부터 줄곧 24번을 유지해 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곳의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YTN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수는 천 만 가구 정도, 이들 가운데, 80%는 이미 디지털 24번을 통해 YTN을 시청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앞서 언급한 48번, 50번, 100번 등 다양한 번호로 YTN을 시청하고 있다. 바로 이들 디지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YTN 24, 채널 포지셔닝 작업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호그와트 마법학교보다 더욱 변화무쌍한 뉴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신가? 아날로그 24번에 이은 디지털 24번 플랫폼의 완전 개방. 이제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리고 미래다. 열려라, 디지털 24번 플랫폼!

김호성 매체협력팀장



2개월 이상 1위

종편출범 이후 (2011. 12. 1 ~)



15일간 1위

일본대지진 (2011. 3. 11)



13일간 1위

천안함 침몰 (2010. 3. 26)



8일간 1위

이라크 전쟁 (2003. 3. 20)



YTN, 5년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5년 연속 1위 수상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문' 2위 (50대 이상에선 1위)
 '가장 유용한 매체 부문'은 방송사 중 KBS이어 2위

YTN이 우리나라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5년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는 2007년 미디어어워드 출범 이래 1위를 놓치지 않은 YTN이 '정보의 객관성,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균형보도, 특정국가나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 편향되지 않은 보도태도 측면'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2011년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YTN은 '보도 내용이 건전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진실한지, 그리고 믿을만한지를 평가'하는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문'에서도 1위인 경향신문에 불과 0.03점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YTN은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로 선정돼 뉴스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언론사임이 입증됐다.

'다양하고 흥미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보도되는지, 제공되는 콘텐츠가 자기 계발이나 자신의 업무 등에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한 '유용성 부문'에서도 방송사 가운데 KBS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전체 매체에서는 네이버, 다음, KBS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언론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뉴스채널 YTN은 공정성·신뢰성·유용성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2011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언론학회 회원을 대상(408명 응답)으로 종합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4개 방송매체, 신문구독률 상위 6개 종합일간지, 방문자수 기준 상위 2개 종합 국내포털과 인터넷 신문 등 모두 14개 미디어에 대해 실시해 나왔다.

가장 공정한 미디어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가장 유용한 매체



김백 상무(사진 오른쪽)가 수상후 기념 촬영.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

연구소가 직접 해당척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 3의기관인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이 해당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각 부문최고 점수를 득한 미디어 기업에게서 시상하였습니다. 한국언론학회 회원은 언론학 및 관련 학문의 대학교수나 언론학 박사로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승인을 받은 이들로 자타공인 '미디어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평가에 의해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드리면서도 당부도 드립니다. 이번에도 사회부문의 대상은 없었습니다. 공정성, 신뢰성, 유용성에서 최고점수와 아울러 종합점수가 10점을 넘긴 미디어기업에 주어지는 미디어 사회 대상에 가장 근접한 YTN이 첫 수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미디어부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소수의 공급자차원에서 수요자중심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자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미디어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권위는 이제 과거 정보의 독과점적 선점에서 오는 공급자적 우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디어들의 보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에 따라 미디어의 권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YTN이 5년 연속 공정성 부문 1위에 오른 만큼 사회적 기대수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더욱더 공정한 보도를 하기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1 Media Awards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사)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011년 미디어 어워드에서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정성은 미디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YTN이 2007년 이후 5연속해서 공정성에서 1위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뉴스매체로서 확고히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YTN 임직원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출범시킨 '미디어 어워드'가 2007년 이후 5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는 변함없이 중요한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인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가장 공정한 미디어, 가장 유용한 미디어를 선정하고 2011년 12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클럽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지털융합시대에 바람직한 미디어상을 진작하고자 미디어어워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소가 별도의 과제를 발주하여 미디어 사회상부문과 미디어경영상부문, 그리고 유료방송콘텐츠부문의 평가척도를 각각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미디어 사회상부문은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그것도 (사)미디어미래연

5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 미디어미래연구소 -

2007 2008 2009 2010 2011

NEWS YTN

'뉴스는 YTN입니다'

윤두현 보도국장에게 듣는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 필요한 뉴스를 찾겠습니다

지난 해 종편과 신규보도채널 등이 개국으로 우리나라 방송계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종편 등 신규매체의 개국은 오히려 YTN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여주고 있다. 정작 뉴스를 보기 위한 시청자들의 수요가 YTN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 해는 특히 뉴스전문 채널 YTN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5년 연속 '공정한 미디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YTN... YTN 윤두현 보도국장에게 새해 보도국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 본다.

우선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도국장을 맡게 된 때는 예고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이에 따른 회사 동료들의 이직으로 회사가 술렁이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종편채널이 황금채널 배정에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더해 시청률이 지상파 다음에 자리 잡게 될 가능성마저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뉴스채널의 위상, 다시 말해 YTN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출범은 YTN 가족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우리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 결과 YTN은 종편채널 출범이후 일요일인 12월 4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에서 케이블시청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 시청률을 넘기는 경우가 벌써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AGB닐슨 기준). 종편채널 출범이후 격정과는 달리 뉴스전문채널 YTN의 위상은 오히려 공고해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 YTN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웃해 있던 경제뉴스 채널 MBN이 종편채널로 옮기고 대신 들어온 뉴스Y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사이익보다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 보도국 부·팀장과 기자들은 물론 기술국을 비롯한 비보도국까지, 전 사원들의 땀어린 노력으로 종편채널의 출범이라는 위기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편과 신규보도채널 출범을 맞아, YTN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 종편채널과 통신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뉴스전문채널 '뉴스Y'의 출범은 케이블 방송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시장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이죠. 남이 하는 경쟁은 아름답지만 자신이 하는 경쟁은 피곤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존의 지상파에다 4개 종편채널의 틈바구니 속에서, 게다가 '뉴스Y'와의 경쟁은 우리를 갈수록 지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면 준독과점 시절 YTN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과 달콤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치열해지는 방송시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뉴스전문채널로서의 특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news)는 새로운(new)의 복수형입니다. 뉴스전문채널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전해야 합니다. 속보체제를 강화하고 긴급속보 문발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미래의 주시청자층도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뉴스채널로서 시청자에게 뉴스의 현장을 실시간 보여줘야 기존 지상파나 종편채널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TVU라는 새로운 영상취재장비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반복도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조금전 새로운 것은 지금 새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 아이템의 반복을 피하고 기자들의 출연, 전문가 연결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새로운 것은 더 새롭게, 이미 전한 것은 보다 깊이 있게 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맞는 편성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청률 조사에서 나타나는 뉴스 소비자들의 시청행태도 분석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 시청자들이 필요한 뉴스를 찾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옐로 저널리즘'은 피해야겠지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거방송 준비상황과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YTN의 그동안 선거방송은 '저비용, 고효율'의 전형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경쟁 상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예측조사와 출구조사, 개표방송 등에서 높은 적중도와 신뢰도를 보이며 성과를 내왔습니다. 동시에 차별적인 포맷과 분석틀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선거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10.26서울시장재보궐선거 때 한국 선거방송 사상 최초로 IT 기술을 여론조사와 접목시킨 '스마트 폴' 조사나 여야 시장후보 득표율을 서울 지역 48개 국회의원 지역의 총선 전망과 연계해 분석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가 2012년

이슈의 중심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도국 차원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선거 보도와 선거 방송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취재본부제로 전환한 지역 취재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되니까?

뉴스전문채널인 YTN에 있어 지역 취재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도 만큼 뉴스도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지역 뉴스들은 우리사회 여론의 '지역성'을 보완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그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각각의 지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창원지국을 없애 10개 지국으로 만들면서 각각의 지국을 몇 개씩 묶어 4개 지역취재본부(강원, 충청, 영남, 호남)제로 개편했습니다. 4개 지역취재본부장은 춘천, 대전, 부산, 광주 지국장이 겸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국 체제를 지역취재본부 체제로 광역화한 것은 지국 단위시절 미흡했던 아이템 조율과 중요 사건의 체계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취재본부간 큰 틀의 조율이나 취재본부 내 각 소속 지국간 협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2012년도 보도국 업무목표에서도 밝혔지만 케이블PP 가운데 시청률 1위와 하루 평균 시청률 1%의 지속적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 가운데 시청률 1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시청률 1%는 주요 이슈가 터졌을 때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뉴스 전문채널의 평균 시청률 1%는 세계 최초의 뉴스전문채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CNN이 전성기 시절에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시청률과 국민들의 높은 뉴스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제설정기능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맥을 짚음으로써 사회 의제를 이끌어 가야 YTN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뉴스, 힘 있는 뉴스, 믿음 가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범!... 지역취재본부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4개의 지역취재본부가 지난해 신설됐다. 올해 예정된 총선과 대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해와 태풍 등 대형 사건·사고 보도에서 지역취재본부의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취재본부장의 새해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충청취재본부

지금 지방에선!

중편 4개 방송이 뜨고, 보도채널이 추가로 생기고... 어수선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새로운 출발!
 기자생활 만 28년, YTN 기자로 다시 태어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YTN 지방조직은 그동안 대전에서 대전지국으로, 이제는 충청본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전과 충남지역 인구는 350만 명. 그동안 2명의 취재기자가 윌라드 플레이어, 한마디로 '전 천후' 기자로 뛰어나면서 YTN의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대전지국과 청주지국이 하나로 뭉쳐 '충청도' 취재본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취재인력은 4명입니다. 지방은 인력이 없어 휴일에도 대부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 취재망의 광역화로 휴일 근무체제에 다소 숨통이 트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무 여건을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복합심도시 '세종시'. 올해부터 세종시가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올 7월로 예정된 세종시 출범은 우리 YTN 취재 네트워크망에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올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천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 셈입니다. 세종시가 안정하기 전까지는 충청취재본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충청본부의 '막강 파워' 영상팀과 엔지니어, 그리고 '빠른 뉴스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팀 등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잡자던 용이 용틀임하듯 YTN, 그리고 충청취재본부의 역할과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정우 충청취재본부장

호남취재본부

본부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 위해 최선 다할 터!

호남취재본부는 광주광역시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산하에 전주지국과 제주지국이 있습니다. 호남본부의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본부장을 비롯해 지국장 2명과 취재기자 4명, 카메라 기자 4명, 기술 2명, 촬영보조 3명, 운전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남본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43개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특히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과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있는 등 시간외가 많고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가장 많은 섬이 있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등 취재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의 초대 취재본부장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본부 산하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전주·제주지국장 과 정례 화상회의를 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화상회의를 하는 등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주와 제주지국 직원들과는 수시로 전화로 마음을 주고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합된 지국장 과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본사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취재본부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인력과 장비 보강 등 지역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취재본부장과 협의해 공동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트 등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뉴스의 현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국 단독취재를 지양하고 본부 공동취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의 '고품격 리포트'를 제작함으로써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YTN의 최대 강점이 '현장을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인 만큼 중계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뉴스의 현장'에 배치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본부와 제주지국에 배치된 중계차 2대를 본부 내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중계차를 확충시키는데도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같은 근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사심도 생기고 업무의 능력도 오르게거든요. 따라서 직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주고 배려하는 '따뜻한 본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배 호남취재본부장

강원취재본부

광역화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야 ...

YTN이 올해로 18살이 됐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조·중·동과 MBN이 중편으로 개국했고, 연합뉴스도 케이블을 통해 뉴스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기를 지나 청소년 시기에 들어선 YTN도 좀 더 강하고 세련된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지국 가운데 제주지국을 제외한 8개 지국을 4개 광역권으로 통합했습니다. 중편과 연합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섬니다.

충청과 강릉지국으로 분리됐던 강원지역도 강원 취재본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국의 부족한 취재 인력과 장비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강원 취재본부의 직원은 모두 12명뿐. 다른 본부와 비슷하지만, 강원도의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취재권역이 너무 넓은 게 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하소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광역화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의 기후가 전혀 달라서 취재 권역의 융통성과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취재 인력과 장비를 배정해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변화에 걸맞은 아이템을 찾아내 강원 취재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발달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YTN 지국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지역 중심의 언론 매체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YTN 임직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강원 취재본부 파이팅!!!

홍영기 강원취재본부장

영남취재본부

YTN 지역국의 새 장을 연다...

YTN 영남취재본부는 신리(新羅)다. 관할하는 영역이 그렇고 직원들의 기질이 더욱더 그렇다. 취재 영역은 본부가 있는 부산을 비롯해 창원과 울산, 대구 등 경남, 북을 모두 아우른다. 한마디로 말해 삼국시대 신라(新羅) 영토 전역이다. 직원들의 기질은 옛날 신라인(新羅人)처럼 무슨 일을 하든 '뚝' 부러진다. 대중 대중이 없고 일을 하면 확실히 한다. 되지 않을 일은 아예 하지 않고 설사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일단 하고 나서 불평을 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영남본부 사람들은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질 않는다.

영남 본부에는 본부장을 포함해 취재 기자 9명, 촬영 기자 7명 등 모두 23명의 식구가 있다. 영남의 맹주 채장수 대구 지국장, 부지런함의 대명사 김인철 울산 지국장, 부산 지국을 지난 6년간 훌륭하게 이끌어온 손재호 차장, 그리고 말이 같은 막내 창원 지국 박종혁 기자 등등 다들 지역국의 숨은 공로자들이다.
 영남취재본부는 다른 지역 본부도 그렇듯이 회사 일은 지국 경계 없이 '품앗이'를 한다. 부산, 창원이 부산지국 소속으로 서로 돕고 살았지만, 이제는 울산과 더 나아가 대구까지 서로가 부족한 일은 보완하도록 한 것이 영남취재본부의 존재 이유다.

새로 태동한 영남취재본부는 선도적으로 본부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중계차 활성화 계획'이 그렇고 현재 준비 중인 '내년 총선 로컬 토론회'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중계차 활성화 계획'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를 포함해 주 1회 중계차를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생생한 현장 위주의 방송을 위해 준비를 한 것이다.
 '내년 총선 로컬 토론회'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시행이 된다면 YTN 지국 사상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지역 유력 신문과 SO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영남취재본부에 왔을 때 몇몇 후배들이 취재 본부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지국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구성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번 지역취재본부도 우리들의 활용 여부에 따라 승패 여부가 갈라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영남취재본부도 지국 차원에서는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역취재본부 만들기를 참 잘했다는 경영진들의 평가를 받고 싶다. 지금 지역국에는 숨은 인재들이 참 많지만 지금까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그 인재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멋있게 멍석을 깔고 한바탕 멋지게 춤을 출 시간이 왔다. 영남취재본부 식구를 파이팅!!!

김종술 영남취재본부장

2012년 2월 과학전문채널 YTN SCIENCE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전문채널 YTN SCIENCE가 2월 개편을 통해 확 달라진다. YTN SCIENCE는 재미있고 즐거운 과학채널을 목표로 채널 인지도를 높이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편성 개편을 단행한다.

편성의 틀을 깨다

2012년 YTN SCIENCE의 편성 전략은 한마디로 버라이어티(variety)다. 자체 프로그램의 편성을 기존 30분 단위에서 10분, 30분, 40분, 50분 단위로 다양화하고 언제든지 채널을 보면 과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시청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오전 시간대에 집중해왔던 본방송 시간을 오후 5~6시대로 이동 편성한다. 또한 자체 제작을 대폭 늘려 과학채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누구나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과학뉴스는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해 하루 8번 과학계 뉴스를 전하고 특히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과학저널리스트가 현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과학계 소식을 전한다.

해의 구매 프로그램 편성을 대폭 줄여 해의 제작물 재전송(?)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정서에 맞는 맞춤형 편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생활과 더 가까워지는 과학

YTN SCIENCE는 생활과 밀접한 아이টে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와 과학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없애고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주요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박상원의 WHY & HOW·50분>를 비롯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에서 과학적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병준의 판도사·50분>, 미래 융합인재육성 교육 프로젝트 <STEAM 패트롤·50분>, 과학계 현안을 들어보는 <사이언스 초대석·50분>, 음식 속 과학을 알아보는 <푸드 사이언스·30분>, 과학기술 현장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Zoom In 현장·50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이언스 의학칼럼·10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해 방송에 참여하는 <U-tv·30분>, 과학계 소식을 전하는 <사이언스24·40분>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새로운 브랜드 YTN science

사이언스TV, YTN사이언스, YTN SCIENCE, YTN사이언스TV, YTN SCIENCE TV 등 그동안 꾸준함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채널 로고를 써오면서 대내·외적으로 혼동을 초래해왔다. 또한 채널 캐치프레이즈도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 그때 그때 만들어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2012년 용의 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채널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채널 브랜드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문으로 로고를 제작해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 디자인했다. 이번엔 디자인한 YTN SCIENCE 로고는 YTN이라는 브랜드와 개국 6년째를 맞는 사이언스TV 브랜드 중 장점만을 부각할 수 있게 조합했다.

과학으로 통하는 사회와 대한민국 대표 과학채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울러 제2창사를 하는 마음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신영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장



YTN SCIENCE의 새 얼굴들

제작 PD

이동은

정식으로 YTN 식구가 되어 영광입니다. 막내로서 열심히 배워가며 사이언스TV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작 PD

고성민

사람이 만든, 사람을 위한 방송이라는 신념으로 발로 뛰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제작 PD

홍종현

다소 생소하고 낯선 환경이지만 프로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고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파이팅!

과학저널리스트

정현상

평소 과학에 관심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저널리스트

심재훈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과학뉴스! 발로 뛰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저널리스트

양혜영

YTN사이언스의 새식구가 되어 기쁩니다.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모두 모았다!!!



박상원의 Why & How

가볍게 지나쳤던 과학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주간의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현장을 찾아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알아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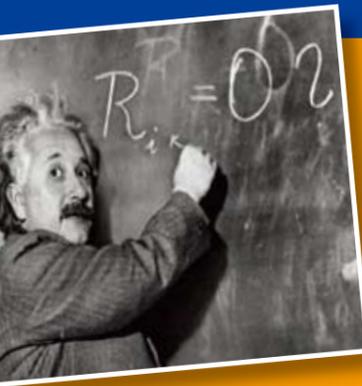
이슈 플러스(과학으로 보는 뉴스), 사이언스 & 세이프(생활 속 안전 지식), 컨슈머 리포트(최신기술 뜯어보기), 간단 브리핑 등을 통해 과학 기술계 전반을 살펴보고 분석해본다.

<이슈 플러스> 심층취재! 과학적 분석! 4명의 과학저널리스트가 출동한다! 제작진이 직접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사건, 사고현장! 일반뉴스에서 못다한 뒷이야기... 보다 깊이,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과학적 분석까지 이슈 플러스에서 사건현장의 그 뒷이야기를 상세히 파헤 친다.

<사이언스 & 세이프>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은 무시무시한 위험요소가 존재 한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벼운 함정!!! 그 함정은 우리의 생명도 위협한다!! 하지만 무섭고 강력한 위험요소! 그 위험 포인트를 쏙쏙 뽑아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컨슈머 리포트> 도대체 어떻게 사용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기술인가?? 일단 뜯어보자! 무엇이 쏟아지는 신기술, 신제품!! 우리는 지금 매일신기술, 신제품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찾아 요리조리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충족시켜주며 재미있는신기술 세계를 찾아 그들의 연구과정을 알아본다.

<사이언스 브리핑> 시사각각 변하는 세계. 이번주의 과학계소식은 뭐가 있었을까? 매일 보는 과학뉴스를 다시 찾아보기 짜증 날 때! 박상원의 Why & How사이언스 브리핑을 받으세요! 한 주간 있었던 과학계소식을 총정리! 초간단! 편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병준의 판도사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고 재밌게!! 단편적인 정보 전달? ... NO! 이 프로그램은 융합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지식창고! 과학은 어렵다? ... NO! 언제나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과학 원리와 재미있는 과학 상식을 전문가의 분석과 실험을 통해 쉽게 전해주는 본격 과학정보 프로그램!

판단을 도와주는 과학 이야기

'개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상추는 ()빛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이러한 궁금증 및 고정관념들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MC 김병준 변호사의 편안하고 맛깔스런 입담과, 리포터의 생생한 현장 체험담! 그리고 과학전문기자가 함께 함으로써 자칫 딱딱하게 흘러 갈 수 있는 과학 이

야기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끌어 간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첨단 과학기술들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과거로의 타임머신을 이동! 당시 과학자들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확인해보고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 어떤 성과와 미래를 열어나가는지 심도 있게 파헤 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김병준의 판도사'다.

판도사 실험실 공포영화를 보면 정말 시원해질까?! 일상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적 분석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코너!

오늘의 과학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키워드, 인물 등이 과학사에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교훈을 주었는지 소개하는 코너! 스티브 잡스? 4G? 모든 걸 밝혀주며! 타임머신, 인공지능과 아인슈타인? 황금 쌀과 멘델? 과거로 타임머신을 이동해 당시 과학자들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확인해보고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 어떤 성과와 미래는 열어가는지 심도 있게 확인해본다.



ZOOM IN 현장 (대한민국 곳곳의 숨은 과학 찾기!)

어렵고 지루하다고만 느끼는 과학, 하지만 생활 곳곳에 과학은 숨어 있고,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렇다면, 최신 과학 기술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ZOOM IN 현장>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의 깊은 곳부터 그들의 숨은 이야기까지 세밀하고 생동감있게 직접 찾아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눈부신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변천사와 숨은 이들의 노력, 절대 뻘하지 않은 Fun한 대한민국의 숨은 과학과 과학인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다각도 과학 다큐쇼, 뻘하지 않은

Fun한 과학현장을 <ZOOM IN 현장> 카메라가 찾아 들어간다!

현장! 名人 손수기초과학에서부터 IT, BT, NT 최첨단 과학과 문화예술영역까지! 각 분야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연구에 매진하는 명인들이 있다! 국내 대표급 과학기술계 명인에게 직접 듣는 생생하고도 과학 이야기와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을 통한 과학계의 비전을 알아보는 휴먼 다큐멘터리.

마이드림, 25時 이공계 위기라는 대한민국에서 곳곳하게 과학강국 대한민국의 꿈꾸는 이들이 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숨은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예비 과학인들의 25시간! 대한민국 청춘들이 꿈꾸는 과학과, 그들만의 고민을 ZOOM IN 카메라가 쫓아간다.



사이언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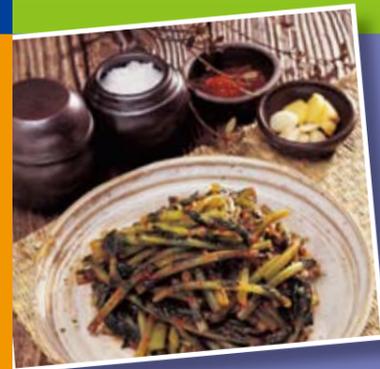
사이언스24는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방송 사이언스TV의 뉴스프로그램이다. 사이언스24는 국내외 과학계 뉴스와 이슈 보도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화 / 스튜디오 출연

전화 / 스튜디오 출연 코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과학계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당 당사자나 최신 트렌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하거나 스튜디오로 초대해 그 이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 보는 코너이다. 해당 이슈에 대해 7~8가지의 질문을 6하원칙에 따라 물어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풀어써 설명함으로써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섹션 뉴스

① **사이언스 & 컬처** 과학에 대중문화를 접목한 코너이다. 영화, 뮤지컬, 연극, 각종 공연 등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그러한 대중문화 속에 숨은 과학현상을 발굴해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푸드 사이언스

어제 먹은 된장은 내 몸에 어떻게 좋을까? 김치는 왜 묵을수록 맛이 날까? 여름에 먹는 삼계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무심코 먹는 낫은 우리 음식, 그 속에 담긴 색다른 과학 이야기. 우리의 맛을 더욱 재밌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푸드 사이언스>가 하나씩 파헤쳐본다.

우리 음식에 담긴 맛깔스런 과학

<푸드 사이언스>는 '어떻게 우리 음식이 이처럼 고유의 맛을 내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사실 우리네 부엌에는 특별한 레시피가 없었다. 소금 한 줌, 고춧가루 넉넉히... 솜자가 아닌 논대중 손대중으로 똑똑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음식이다. 언뜻 보면 대중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식재료와 고유의 조리법이 만나서 내는 맛, 그 맛 속에 바로 과학이 있다. 이러한 맛의 과학을 찾아 전국을 누비는 <푸드 사이언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골라 그 지역의 풍토와 기후가 고스란히 담긴 식재료가 토박이 주민

② **특허기술** 특허를 취득한 최신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의 탄생에서부터 권리획득인 특허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취재한다. 신기술이 갖는 의의와 향후 전망 등을 보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앞으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③ **IT 분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등 최신 IT 트렌드를 집중 조명한다. 화제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소개에서부터 소셜네트워크가 가져 온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일반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에 녹여 풀어낸다.

④ **대덕연구단지**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내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발굴해 보도한다. 연구원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까지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과학상식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그러한 명칭을 갖게 됐는지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한줄과학

뉴스 리포트와 단신에서 보도하지 못한 과학계의 최신 뉴스를 말 그대로 한 문장의 뉴스문장으로 압축해 전달한다.

들의 손맛을 통해 음식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그 속에 과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낫은 음식으로 보는 재밌는 과학

'잡채'는 조선시대 뇌물로 올리던 음식이었다. '삼겹살'은 탄광지역 광부들 덕분에 국민고기가 됐다. 이렇게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우리의 맛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전통과 그에 담긴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푸드 사이언스>는 이처럼 맛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예부터 전해오는 음식의 효능과 다양한 음식궁합 등을 통해 미처 몰랐던 우리 맛의 과학적 이면을 살펴본다.

먹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하지만 음식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긴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쉽게 접하는 음식에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 향미를 더하는 프로그램. 우리 음식을 가장 맛깔나게 해주는 달콤한 감미료, 바로 <푸드 사이언스>다!



스팀패트롤은 과학 찾기!

스팀(STEAM, 융합인재교육) 패트롤은 빛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교육계는 지금, 스팀(STEAM)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융합인재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STEAM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 Mathematics(수학)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 이론 중심의 과학·수학 교육에 기술, 공학, 예술교육을 연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과학적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을 찾아가 융합인재 교육의 노하우를 전하고자 한다.

자신 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씨 맞으시죠? 합격이시구요....

버스를 타고 할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하는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던 저에게 전화 속의 남자 분은 뭐라고 조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뒷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조금은 무모하게 회사를 그만 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하니 몇 정류장을 지나고 전 환승을 위해 버섯처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YTN 앞 정류장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몇 년 동안 무수히 많이 내렸던 정류장 말입니다. 이전에는 간혹 YTN을 바라보더라도 '과연 저곳에는 누가 다닐 수 있을까?' 라며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하듯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제게 필요한 버스만 바라봤을 뿐 YTN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은 달랐습니다. 당당히 YTN을 바라보며 '내 회사'라는 말을 되뇌일 수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을 바라보며 원뿔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원뿔의 온전한 모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이다." 예전 한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원뿔은 참 재미있는 녀석이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원이고 앞에서 보면 삼각형, 위에서 보면 부채꼴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모두를 알아야 원뿔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원뿔 이상으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도 그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언론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서를 가든 열심히, 자신의 구체적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세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첫 출근을 한 오늘까지 기쁨만큼이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며 기자로서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수습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 동안 인간의 형체를 잃어버리겠다며 장난치던 친구 녀석의 말은 그 걱정을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지금' 저에게는 함께 고생을 이겨낼 동기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혼나면서도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금' 저에게는 어디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회사 YTN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행복할 '지금'들을 떠올리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과거, 미래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 잊지 않고 저와 제 14기 동기들 모두 선배님들께 자신 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는 History고 미래는 Mystery란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Present라고 부르는 거야."

김주영 공채 14기(방송기자)



<공채 13기가 14기에게>

일단 달려! '수습' 때는 날까지 쪽~

축하해! 그리고 두 팔 벌려 환영해! 합격이라는 최고의 새해 선물을 받은 YTN의 새 식구, 너희들이 무척 반가워. 이제 곧 시작될 '수습' 생활, 어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레 걱정하는 부분도 많을 거야. 물론 쉽지 않아. 24시간 내내 일하고 또 배우는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테니까. 남자들은 몇 달 군대 생활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야. 하하하 괜찮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너희들의 자력을 믿어. 그럼 수습 생활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줄게.

잠을 이겨려!

난 개인적으로 인간의 3대 욕구 가운데 수면욕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정말 이겨내기 힘들거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맘 편히 자지도 못 할 거야. 수마에 골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지. 눈을 뜬 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남아있는 전화를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올 거야. 선배들 중에는 수습 기간에 보고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철인도 있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면 성실하다는 평가는 당연히 따라오겠지?

무조건 적극적으로!

밖에서는 너희가 바로 YTN이야. 쫓뿔대고 자신 없는 모습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YTN 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 특히 경찰서나 사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데 이골 난 베테랑! 절대 기가 눌려선 안 돼. 단, 버릇없는 모습은 안 되겠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당당하게 다가가 봐. 계속 부딪쳐 보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적극적인 자세!

스스로 기사 연습!

기사는 취재의 결과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게 기사를 쓰려면 내공이 있어야 해. 수습 때는 선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으면 기사 공부는 소홀히 하기 마련이야. 기사를 잘 쓰고 또 빨리 쓰려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해. 선배가 쓴 기사나 다른 회사의 기사를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봐. 부지런히 모티터를 하다 보면 실력도 쑥쑥 늘 거야.

인사 잘 하기!

새 식구는 회사 안에서는 튀는 존재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그러니 좋은 모습을 어필하는 노력도 필요해. 씩씩하고 깡뚫하게 인사하는 후배를 싫어할 선배는 없어. "안녕하십니까" 한 마디로 너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봐!

겨울에 시작해 여름에 수습 생활이 끝나겠구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금방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하는 수습 생활, 즐겨봐!

김평정 사회부



Start NEW 2012

YTN의
새 얼굴들
공채 14기



방송기자

김주영

(82. 8. 10 / 서울대 사회학과)

원뿔의 모든 면을 알아야 원뿔의 제대로 된 모양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기자

한동오

(86. 1. 22 /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습니다. 열정뿐입니다. 선배들 말 뒤에 숨겨진 여백마저도 흡수하겠습니다. YTN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떳떳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기자

한연희

(88. 1. 26 / 서울대 국어교육과)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방송기자

최원석

(84. 5. 14 / 성균관대 중어중문)

외할머니께 채널 24번을 알려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보도를 위해 현장에서 깨어 있겠습니다. 선배들께 늘 배우는 자세로, 시청자가 찾는 YTN 뉴스 만들겠습니다!



방송기술

나영채

(81. 4. 11 / 경희대 전자공학과)

안녕하십니까?
공채 14기 나영채입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픽 디자이너

우희석

(81. 6. 4 / 건국대 영상애니메이션)

YTN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선배님들의 노고에 편승하지 않고 그 이상의 노력과 열정을 발휘해 다시 더 발전하는 YTN, YTN 방송을 만드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82. 3. 16 / 중앙대 사진학과)

늘 꿈만 꾸고 갈망만 했던 기자의 꿈이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것처럼 과거의 기자에 대한 열망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포부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촬영기자

박준수

(87. 11. 21 / 세종대 신문방송학)

떨립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설렘입니다. 조연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제법 그럴듯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촬영기자

류석규

(85. 2. 28 / 경북대 신문방송학)

저에게 프레임은 존재의 정원이었습니다. 프레임에 무엇을 빼고 넣을 것인지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겠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빠른 다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꿈과 꿈 사이’

“선배님! 지금 어디쯤 오세요?
 저희들은 현장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구영란 피디의 또렷한 목소리가 아직 잠에서 덜 깬 내 귀에 흘러들어온다.
 “지.. 지금이 몇시죠?”
 “네, 오후 4시입니다.”
 “네에? 오늘 4시 반 인터뷰 시작인데!
 으허허 ... 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미쳤군 미쳤어!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잠을 잤단 말인가?’
 인터뷰가 오후 4시 반인데 나는 4시에 그것도 침대에 누워 전화를 받고 일어났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래도 어떻게든 가보자!’
 가만 ... 오늘 인터뷰는 누구였더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
 머릿속이 원자폭탄을 맞은 듯 뒤죽박죽이다.
 ‘이상하다. 분명 나는 누군가와 이미 인터뷰를 끝냈는데 왜 또 오후에 인터뷰가 잡혀있지?’
 ‘어쨌든 달려가 보자! 화장은? 무슨! 세수라도 하고 가면 다 행이지! 일단 어떻게든 만나야지!’
 그 짧은 순간, 인류 역사를 순식간에 다 훑어버리고도 남을 초강력 슈퍼컴퓨터처럼 엄청난 데이터가 뇌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함 ...
 나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꿈이었구나! 휴~ 살았다!
 이동하는 차 안, 스태프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저마다

하나씩 꿈 이야기를 꺼낸다. 이희중 작가는 꿈에서 만화책 속 캔디가 튀어나와 갑자기 입을 오물거리며 매몰차게 말을 하더라.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제가 인터뷰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캔디에게도 까이는 거야?’ 하며 꿈에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모른다고... 섭외 압박감에 출연 거절 트라우마가 겹쳐서 그런가보다며 작가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다. 구영란 피디 역시 음악방송 라이브 현장에 찾아가 열심히 촬영하는데 갑자기 내가 객석에 나타나 엄청 시끄럽게 떠들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숨었다.

“평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하하하” 한바탕 웃으며 이야기는 마무리 됐다.

드디어 꿈이 아닌 실제 인터뷰 장소에 도착.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인공을 만났다.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난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씨. 전날 대구 공연을 마치고 새벽 2시 서울에 왔다는 그녀는 이른 아침이라 조금 예민하거나 까다로울 것 이란 염려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맑은 웃음으로 인터뷰 장소에 들어섰다. 피곤한 기색 없이 예의바르고 에너지 넘치게 마치 첼로 연주를 하듯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만큼 무대보다 더 아름다운 서른 살 음악가의 아우라였다. 약속된 시간 인터뷰를 마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볼 요량으로 실수한 적 있냐고 웃으며 물었더니 정색을 한다.

“저는 실수 한 적 없어요!”

아니, 열 살도 되기 전부터 그렇게 많은 무대에 올랐는데 지금껏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믿기지 않았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웃으며 말을 이어 간다

“실수도 습관이에요!”

“연습할 때 실수하면 무대에서도 실수하고 연습할 때 완벽하게 하면 연주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클래식 전문가도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해도 알아채지 못할 테지만, 가부를 떠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녀의 자신감이 놀랍고 감탄스러웠다. 교만해 보이거나 어이없지도 않았다. 인터뷰 내내 이렇게 맑고 깊은 에너지를 뽐어내는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녀에게 무슨 주문이라도 걸린 듯 난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다. 자신의 무대에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 나에게 꿈같은 일이다.

며칠 뒤 만난 또 다른 그녀, 노희경 작가.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꽃보다 아름다워]를 보며 가슴이 메어와 드라마를 볼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만난

그녀의 글엔 맨살로 아름다운 함박눈을 맞듯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현실감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인터뷰도 그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딱 한 번 피워봤던 경험이 있지 않냐며 방향하던 청소년기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껄껄 웃으며 돌아오는 대답.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 쪽 피워댔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그녀의 말은 그래서 울림이 더 크다.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남자로 낙인찍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마흔이 되어 이해하게 된 딸, 그녀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한 곡절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가 이거나 평탄치 않아 상처 투성이 까칠한 독신 여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지난 발자국들은 오히려 진심이 담긴 강력한 부드러운 힘으로 ‘괜찮다’며 글을 읽는 누구든 포근하게 보듬어 준다. 그리고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그녀의 말은 뼈아픈 삶의 교훈을 지나 꿈같은 답으로 이어진다.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사람들은 현실 같은 꿈을 꾸면서 악몽에 시달리지만, 또 꿈같은 현실을 꿈꾸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꿈꾸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나에게 꿈을 준 그 사람이 그저 좋아서 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만남은 신기루처럼 다가서면 실체가 없는 허무함을 안기기도 하고 감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기도 한다.

만남을 배달하는 사람, 사람의 향기가 모니터에서 폴폴 흘러나오는 TV, 아무리 오만가지 직업과 4D 영화가 상영되는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직 꿈일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과학보다 더 큰 힘, 바로 사람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정해진 시간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마음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향기를 담겠다는 무척이나 큰 꿈을 꾸는 요즘이다. 국화꽃을 좋아하는 사람, 장미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말하는 사람, 은은한 수선화가 꽃 중의 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꽃은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취향과 삶의 방법은 달라도 그 사람만이 가진 향이 있고 색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

꽃이든 사람이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잊고 지낸 그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행운이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날이면 늘 돌아보게 된다.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향으로 남는 사람일까...’ 하고.

정애숙 <정애숙의 공감> 앵커

다함께 잘사는 세계로

YTN이 개국 이후 처음으로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대규모 국제회의의 주관방송사(HOST BROADCASTING)가 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우수 언론사들에게 3일간 현장의 LIVE 중계화면과 취재 콘텐츠를 제공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11. 29 ~ 12. 1)는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라니아 요르단 왕비, 토니 블레이 전 영국총리 등 160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OECD 등 7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 등 3천여 명의 지구촌 유력인사들이 참석한 매머드 회의였다.

YTN이 각국 VIP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2박3일 동안 취재와 송출을 도맡아 서비스하는 주관방송사 역할을 맡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처음부터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게다가 외교통상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불과 총회개최 한 달 전이어서 준비시간이 촉박했다.

1년 여 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가 떠올랐다. 당시 주관방송사였던 KBS는 엄청난 중계인력과 취재인력이 투입돼 메인 행사는 물론 다양한 세션에 대한 취재 송출을 매끄럽게 해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김백 상무주재로 주관방송 준비회의를 열었다. OECD 국가 가운데 원조를 제공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이 된 유일한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다. 게다가 전후 서방 세계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하역항도 부산이 아닌데,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가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선 안 되겠기에 관심을 제고할 방안이 대해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방송화면 하단의 스크롤과 홍보SB를 만들어 즉각 실행에 옮겼다. 외교부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관련 취재 아이템을 정리했다.

취재기와 촬영기자 중계팀 인프라팀 아카이브 총무지원까지 합치니 일주 40명에 달하는 취재단이 구성되었다. 중계차 3대가 배정됐고 취재편집 장비 리스트 작성, 인터넷 전송망 구성과 통신시설 등 방송 인프라를 체크했다. 많은 인원의 숙박 예약문제는 현지 사정에 밝은 부산지국의 협조를 얻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재 영상과 중계 송출 화면이 차질 없이 국내외 언론사에 잘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올림픽 규모의 초대형 이벤트라면 IBC(국제방송센터)를 설치해서라도 방송신호를 송출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할 사안은 아니었기에 본사의 신호분배실을 통한 영상배포와 별도로 영상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위해 인터넷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전세계 언론사인 만큼 현장 취재 겸 웹하드 영문 인덱스 작성을 위해 영어에 능통한 국제부 기자까지 현장에 파견됐다.

취재기자들과 함께 총회 시작 하루 전에 KTX를 타고 내려간 부산 벡스코 현장은 '공사장' 그 자체였다. 망치소리와 모터 청소기 소음이 가득한 가운데 바닥은 온갖 전기배선과 붉은색 카페트가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널려있었고, 행사장 칸막이벽은 도배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이미 YTN의 중계팀과 인프라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별로 하루 이틀 전에 도착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송설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열악한 현장에서 우리 취재단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동료들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다.

이번 벡스코 총회의 백미는 역시 MPC(메인프레스센터)에 자리 잡은 YTN스튜디오였다. 그동안 지상파들이 대형 이벤트 때 설치했던 옥외 스튜디오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럴듯한 구조물이 우뚝 들어섰다. 게다가 YTN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돼 있던 YTN 로고 조형물까지 스튜디오 옆자리에 옮겨놓고 조명을 밝혀 더욱 화려해 보였다. 취재기자들은 이곳에서 시시각각 총회 소식을 생생히 전했고, 케빈러드 호주 외무장관 (전 총리)



메인프레스센터 생중계장면

등도 이곳에서 우리와 인터뷰를 했다.

BBC와 알자지라 방송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우수 방송사에서 메인프레스센터의 YTN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자기들도 이용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문의해왔다. 또 외국 기자를 비롯해 자원봉사 학생들도 우리의 스튜디오와 YTN로고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하는 것을 보곤 내심 '우쭐'한 마음도 들었다.

나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다. 첫날, 현장에서 취재한 화면을 웹하드로 업로드를 해보니 인터넷 망이 불안정해서 파일이 깨지기도 하는 등 한동안 많은 애를 먹었는데 전송망을 재조정하면서 겨우 상황이 해결됐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한 취재기자는 르완다 대통령의 연설이 르완다 언어와 영어 통역이 믹스된 채 다운로드 된 다음 애로를 호소해왔다. 그들이 오디오채널 분리 기능이 없는 낙후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카이브 팀의 변체질 차장은 직접 파일변환과 렌더링 등의 작업을 거쳐 usb에 담아 직접 전달하는 호스트 방송사 구성원으로서의 자상한 배려를 해주기도 했다.

또 PAL방식의 영상장비를 들고 온 중동국가의 기자들은 우리나라의 NTSC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된다며 스튜디오 옆에 차려진 임시부조정실 관계자들에게 컨버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메인프레스센터 한 칸에 HBO(Host Broadcasting Office) 마크가 신명한 YTN 부스에는 스콧 화이트먼 주한영국대사가 방문해 기회가 되면 출연을 하고 싶다고 했고,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도 격려방문을 했다.

메인프레스센터를 찾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포스를 내뿜었다.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멕시코 출신답게 열정적으로 기자회견에 임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일부 동료들은 '중동의 다이애나비'라고 불리는 라니아 요르단 왕비의 우아한 자태에 반했다며 연신 해폰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취재단은 이번 부산총회를 통해 우리가 실행한 기본포맷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앞으로 어떠한 큰 국제행사라도 충분히 주관방송사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오랜만에 찾은 부산 해운대구는 세계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해변을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서울 출장팀과 부산 지역팀이 어울려 싱싱한 회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의를 다지고, 먼지와 스트레스를 털어낸 추억도 잊지 못할 것이다.



스콧 화이트먼 주한영국대사 부스방문 장면

이기정 보도국 취재부국장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취재단장)



프로그램 제작기

‘꿈의 공장’ 코리아

한류의 대표주자는 역시 K-POP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한류특집 취재후기는 노래의 틀을 빌어 나라별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았다.

1절.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스가 없다.

불가리아로 출장을 떠나기 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가서 불가리스 많이 먹고 오너라.' 였다. 하지만 정작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스가 없었다. 불가리아가 요거트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리스는 독일 유산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본 불가리아도 이 불가리스처럼 내 생각과 전혀 같지 않았다. 단순히 유럽에 있는 먼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던 불가리아는 한류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와 통하고 있었다. 한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동남아나 중국, 일본 등과 달리 자생적으로 퍼지고 있는 불가리아의 한류는 굉장히 더디고 느리지만 사람들에게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불가리아에서 한류를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순간은 한 동호회의 '정보'취재에서 였다. 그때까지 단순히 K-POP이나 일부 아이돌에 국한된 것이 한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특이하게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다.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방영된 '추노'라는 드라마를 모아서 보면서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즐기고 있었다. 물론 불가리아어로 자막이 함께 나왔지만, 한국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사극을

보면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말 진지하게 감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두운 실내에서 조명을 켜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열정적인 정보' 취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 중에 몇 분이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유명인도 아닌 나와 왜 사진을 찍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음악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당신도 나에게 특별하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도 한국 대표 선수답게 멋지게 V 자 그리며 한 컷 찍어줬다. 하지만 그 사진은 그 분이 가져가신지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미약하고 열악하지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라면 곧, 불가리아에도 한류스타들이 방문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2절. 파리지앵도 K-POP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이곳에서 한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미 매체를 통해서 많은 프랑스 젊은 이들이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외치는 모습을 봤지만, 일부의 모습이 크게 부풀려져서 보도된 것은 아닌지,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한류란 어떤 것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일주일정도 파리에 머무르면서 접한 파리지앵들의 한류사랑은 꽤나 진지했다. 단순히 K-POP이나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한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이뤄지고 있었다. 상당수의 대학교에서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연구되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러 학교들을 취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파리 근교에 있는 루앙대학교라는 곳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 학교에는 정식 한국어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듣는 교양과목처럼 수업이 개설 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했다. 그것도 한국식당에서 한국식으로... 수업시간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를 들으며 한국말로 가사를 적는 것만 봐도 신기하고 기특한데, 한국식 신입생환영회라니... 한국인 교수님께 소주를 마시는 법부터 불고기를 먹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마침 그날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라 복장들은 어느 젊은 유럽의 젊은이들처럼 자유분방했지만, 소주잔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선비만큼 의젓했다.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장기자랑인데 역시나 K-POP이었다. 댄스곡부터 한국영화 OST까지, 취재를 하는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런 한국문화에 대한 갈증을 한국에 대한 공부로 건전하게 풀고 있는 이 학생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공부. 이번에는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몇 년 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게 되지 않을까?

후렴. 10년차 베테랑 한류, 일본

2002년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류의 봄이 일어난 일본. 산술적인 계산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일본은 취재를 하기 전부터 불가리아, 프랑스와는 다른 한류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10년차 한류의 첫 번째 모습은 한류거리라고 불리는 신오쿠보 거리다. 예전부터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면서 한국 식당들이나 상점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거리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이 거리를 찾았지만, 지금은 한국 상품을 찾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한국 식당 수만큼 늘어난 한류스타 샵(이 곳에서는 한류스타 브로마이드, CD, 각종 액세서리 등을 살 수 있다.) 식당 테이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삼겹살을 굽고 있는 일본 손님들.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불가리아 가정집

이런 풍경이 이제 그 누구에게도 낯설지가 않다.

두 번째 모습은 한식 요리 교실이였다. 전문 요리사가 아닌 평범한 일본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한국 요리를 배우는 주부들도 한국 드라마나 배우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말로 된 레시피 번역하라, 요리 따라 하라, 주부들의 눈과 손이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리고추 멸치볶음' 어머니의 그 맛과 비슷해서 살짝 놀랐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에서의 한류는 조금씩 모양도 변하고 자리도 바꾸면서 일본인들의 삶속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기대지 말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문화가, 한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경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이 번 출장동안 현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꼭 기회가 되면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였다. 나 역시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K-POP, 드라마 말고도 반할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와서 보고, 듣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이 한류가 어느 특정분야에서 끊기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한류특집을 보면서 국내 시청자들이 그런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

홍성노 영상취재부



왼쪽부터 최영욱, 홍성노, 이강문

YTN 웨더를 만나면 내일은 맑음

내일은 추울까? 따뜻할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개팅이 바로 내일!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내일은 어떤 옷을 입지? 뭐 하고 놀까?' 수많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다 '내일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 '비가 오는 것 아냐?' 하는 걱정에 텔레비전 앞으로 향한다. 그러자 화면에서 나오는 '내일 날씨는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라는 기상캐스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걱정을 털어내고 안심을 하게 된다.

이렇듯 날씨는 꼭 필요한 생활 정보 중 하나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기상 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시간대별 생방송을 통해 날씨 정보를 생생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YTN 웨더'의 역할이 중요한 건 그 때문이다.

YTN 웨더는 아침 6시 방송을 시작으로 <굿모닝 웨더>, <웨더 투데이>, <웨더 센터>란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총 6번의 생방송 한다. 차츰 생방송 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다.

날씨로 아침을 열다 <굿모닝 웨더>

'따르릉' 새벽 5시! 기상청의 첫 예보문이 발표되자마자 기상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새벽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PD가 추가 정보나 특이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기 때문

이다. 이 시간은 기상청도 본래 업무에 바쁜 시간이라 처음에는 우리의 이런 전화가 답답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고, 요즘에는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먼저 전화해 알려주기도 한다.

첫 생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웨더>는 이처럼 첫 예보문이 나오는 동시에 숨 가쁘게 시작된다. 새벽 6시에 1부가 시작되고, 7시에 2부가 이어진다. 차현주, 박은실 두 미녀 기상캐스터가 아침을 책임지고 있다. 기상청에서 매일 새벽 5시에 발표하는 첫 예보문을 바탕으로 출근길과 오늘 날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굿모닝 웨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굿모닝 웨더>는 단순히 날씨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제/오늘 날씨비교> 코너를 통해 어제와 오늘 날씨를 자세히 비교해 줌으로써 날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예컨대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몇 도 더 낮아서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보다 밀착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틀간 날씨를 비교하면 최근 날씨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출근이 시작되는 7시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도로공사/서울

시경)도 전한다. 한국도로공사는웨더 채널에 걸맞게 비나 눈 내려 도로 시정이 좋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안개로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10분 간격으로 캐스터의 날씨를 전해주는데, 바쁜 출근 시간에 날씨를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신설 준비 중인 코너 <출근길 패션제안, 오늘 뭐 입지?>를 통해 매일 아침, 날씨 정보 전달과 더불어 날씨에 맞는 그날의 의상 코디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정확하고 재미있는 날씨를 만나다 <웨더 투데이>

<웨더 투데이>는 하루에 3번 정혜윤 캐스터와 차현주, 윤유라 캐스터가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래서 날씨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특히 미투데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리꾼들과 날씨 이야기를 소통하고 있다. <웨더공감 오늘 날씨 어때요?> 코너인데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 혹시 사우 여러분 중에 경품이 탐나신다면, 미투데이에 들어오셔서 꼭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기 바란다. 또한, 기존 타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맞춤형 날씨도 제공한다.

스키장 날씨, 온천 날씨, 문화유적지 날씨 등 10개가 넘는 맞춤형 날씨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선보인다. 물론 훌륭한 YTN 기상캐스터의 진행으로 말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CCTV를 이용한 실시간 <재난지역 모니터링>, <캐스터의 수다>라는

코너도 신설해 캐스터들의 또 다른 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날씨는 어떨까? <웨더 센터>

웨더 센터는 과학기상팀의 베테랑 기자 김지현 선배와 이번에 새로 입사한 청일점 김수현 기상캐스터가 진행을 하고 있다. 웨더센터는 오늘 날씨 정리와 내일 날씨예보를 토대로 방송을 진행하는데 남녀 앵커가 진행하는 만큼 상큼? 하다. <웨더센터> 코너를 소개하자면 케이웨더의 전송철 예보관과 함께하는 <내일 날씨 예보>, 날씨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런 날씨&&코너>가 있다. 예를 들어 '수능 날은 항상 출나?'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궁금하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는 것을 해결해주는 코너이다. 또 SNS를 이용한 누리꾼들의 날씨 이야기 <웨더공감 오늘 날씨 어때요?> 등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12년! 시청자의 하늘은 잔뜩 구름이 끼기도 비가 내리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비 온 뒤의 하늘이 더욱 맑은 것처럼 YTN 웨더를 통해 시청자의 내일이 언제나 '맑음'일 것을 기대해 본다.

이상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임채훈PD였습니다.



임채훈
YTN웨더 편성제작팀 PD



<방송시간> <굿모닝 웨더> 06:00, 07:00 <웨더 투데이> 09:00, 11:00, 14:00 <웨더 센터> 17:00
<제 작 진> PD 임채훈, 한문규, 김보리 / AD 김현아, 이혜연, 곽나은, 권혜미



기상캐스터 손승현 기상캐스터 김수현 기상캐스터 유다현

뉴스와 정면승부 하는 사람들

“시사프로그램에서 어깨 힘 좀 뺏습니다!”

YTN 라디오가 11월 14일 가을 개편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선보였다. 저녁 6시 10분부터 8시까지 퇴근길을 책임질 시사프로그램 <뉴스! 정면승부>를 신설하면서 방송 3사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라디오 방송사에서 아침 시사프로그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편성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한 것처럼 출발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한 것은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의 섭외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첫째, 언론의 기사 생성 메카니즘상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은 아침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이 하루 종일 다른 언론사로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주요 일간지들이 마감을 앞두고거나 마감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기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인터뷰를 고사한다는 점이다. 둘째, 저녁 시간대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침 출근길 전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저녁 시간대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봐도 경쟁사들의 저녁 시간대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의 출연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 정면승부> 제작진은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이 과정에서 PD와 진행자의 개인적인 친분과 프로그램 작가들의 집요함이 더해져,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뉴스! 정면승부>팀이 일에 대한 태도는

최근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서점가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책의 저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안 되면 말고 ~’식이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두려움과 어색함, 그리고 망설임을 극복하면서 섭외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이제는 제법 친한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보좌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은 매일매일 우리 팀 전화를 받은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이제 그만 전화 좀 하라’며 핀잔을 줄 정도였지만, 안면 몰수하고 매일매일 안부전화를 하자 이제는 친근감까지 생겨 트위터 맛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이가 되기도 했다.

<뉴스! 정면승부>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다는 것이다. 누가 칭찬을 해서도 아니고,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팀 내에서 서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는 점이다. 출발 전부터 꾸준히 기획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기존의 시사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진지함을 조금 덜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조금 다른 시사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미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방송 형태를 확정하게 됐다. 이 같은 큰 흐름에서 구성된 코너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매일 크고 작은 뉴스들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브리핑하는 ‘그 남자 뉴스, 그 여자 토크’를 신설해 ‘미녀들의 수다’로 잘 알려진 ‘따루’씨가 담당하게 했다. <뉴스! 정면승부> 진행을 담당

하고 있는 박형주 아나운서가 선정한 뉴스에 따루씨의 입담이 더해지면서, 자칫 우리들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던 뉴스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청취자들의 시선을 세계로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뉴스 돋보기는 자투리 뉴스로 인식되기 쉬운 단신을 중심으로 그 뉴스 속에 어떤 뉴스가 숨어 있는지 집중 파헤쳐 보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또,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에코라이프’ 코너도 신설해 매일 청취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다.

<뉴스! 정면승부>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깨 힘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오늘의 이슈를 선정해 청취자들의 직접적인 전화 참여를 유도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물론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서도 청취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반영하고 있다. 청취자들의 참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책속, 이 문장!’이라는 코너를 프로그램 마지막에 배치해, 청취자들이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나 책 속의 문장을 소개 받아 방송에서 소개를 하며, 퇴근길 고품격 시사프로그램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청취자 참여 코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럴 땐 이런 음악!’이라는 코너이다. 오늘 주제로 선정한 주요 뉴스에 대해, 인터뷰나 토론을 듣고 청취자들이 생각하는 음악을 직접 선곡해 주는 코너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코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정된 뉴스와 관련해서는 ‘DJ DOC’의 ‘허리케인 박’이 신청곡으로 들어와 방송했고, 안철수 교수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뉴스와 관련해서는 조규만의 ‘다 줄 거야’를 선곡하기도 했다.

재미와 유익함이 넘치는 시사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매일매일 아이디어와 전쟁을 하고 있는 제작진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YTN FM <뉴스! 정면승부>는 나날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박용호 YTN라디오 뉴스제작팀 PD



방송시간: (월 ~ 금) 18:10 ~ 20:00

제작진: 아나운서 박형주, PD 박용호, 작가 주나경, 유선영, 리포터 나성숙

기획의도: 하루를 마감하는 퇴근길,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뉴스들을 정리하고, 당사자들 직접 연결해 명쾌한 설명을 듣는다. 특히, 기존의 시사프로그램이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벗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머를 곁들인 진행을 시도한다.

왼쪽부터 패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하지원, 리포터 나성숙, 아나운서 박형주, 작가 주나경, 유선영, PD 박용호

YTN NEWS 94.5MHz

견학기 역시 YTN!

뉴스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고사하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었던 YTN방송국 견학. 추운 날씨 탓으로 움크러진 어깨가 열었다. 하지만 YTN방송국 견학을 하겠다는 모두의 마음은 얼리지 못했던 것 같다. 가장 먼저 대회의실에 모여 몸도 녹일 겸 YTN홍보영상을 보았다. 짧막하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두 담긴 홍보영상은 대회의실 분위기를 사뭇 진지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진지한 마음으로 견학의 첫 발걸음을 옮겼다.

방송국을 처음 방문해서 뭐가 뭘지 구분이 안가고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깨알같이 알차게 견학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역시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답게 우리가 둘러보는 시간에도 생방송 뉴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방송중이라는 불빛은 실 세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뉴스현장을 밖에서 살짝만 엿보았는데도 긴장감과 엄숙함이 느껴졌다. 깔끔하고 단정한 앵커들의 모습과 분위기는 누가 보아도 뉴스를 연상할 수 있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를 하면 고난이 없다.' 날씨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 날씨를 손에 쥐고 있는 'YTN 웨더'를 견학해 보았다. 웨더 스튜디오는 뉴스 스튜디오보다 단출했다. 하지만 날씨정보를 전하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알차게 갖춰있었다. 직접 기상캐스터 체험도 해보았는데, 마냥 신기했다. 너도나도 기상캐스터가 되어보겠다고 아우성이었던 모습을 떠올리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었던 글씨들 덕분에 보도국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견학을 간 날은 칼바람이

뽀를 때리는 날씨였다. 기자들은 그런 날씨에도 따뜻한 보도국을 뒤로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칼바람과 싸우며 취재의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뉴스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란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YTN은 TV 이외에도 라디오와 DMB를 통해서 딱딱딱한 뉴스를 전달해 주고 있었다.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단짝친구의 역할도 거뜬히 하는 것 같다. 온종일 DMB '54분 교통생방송'도 볼 수 있었고, 친절하신 DMB 감독님 덕분에 방송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한 YTN은 축소된 세계라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세계를 품어 각 국으로 뻗어나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견학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쁨을 많이 보았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방송 현장의 바쁨, 그리고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모습들. 시청자와 방송과의 관계는 엄마와 아기 관계 같다. 엄마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기에게 먹여주듯, 방송도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으로써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시청자의 입장으로써 YTN의 더 감칠맛이 나는 정보를 어제 또 내일도 오늘도 기대한다.

우리 학교(순천향대학교)의 진로개발 지원센터와 한국방송제작단의 지원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경험의 2기 주인공이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김현지 순천향대 국어국문학과 4년



포토뉴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전달 (12.29)

YTN은 12월 29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23일에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YTN 시청자위원들도 지난 1년 동안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1,1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아래 왼쪽부터 김승환 심의실장, 고일동 시청자위원회 위원, 김백 상무, 박병후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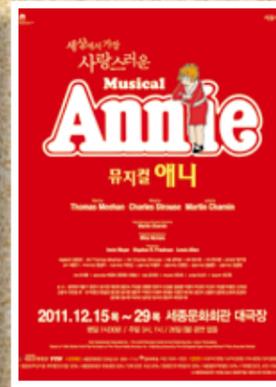
YTN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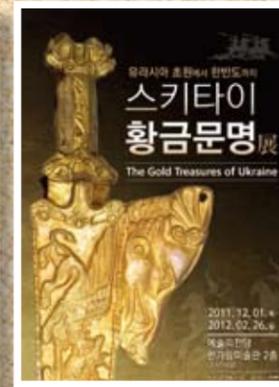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을 밤의 추억" (11.16)



매그넘 세계순회사진전 (12.23 ~ 3.4)



뮤지컬 애니 (12.15 ~ 29)



스키타이 황금문명전 (12.1 ~ 2.26)

연말 포상 (12.30)

<올해의 YTN 대상> 이만수, 김종완 YTN 순회특파원 : 2011년 해외 분쟁·재난 취재 연속 보도 / 마케팅국 : 창사이래 최고 광고매출 달성 및 목표 초과 달성 **<특별상>** 이선영 재무회계팀 : 회사 재무건전성 향상 기여 / 배경호 제작기술부, 박경태중계부 : 한미FTA 비준 안치리 국회 본회의장 단독 생중계 / 웨더본부 : YTN웨더 개국 공로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정애숙 제작2팀 : 정애숙의 '공감인터뷰' **<모범사원상>** 이현섭 미디어전략팀 / 김한성 정보시스템팀 / 이한빈 기획총괄팀 / 조남규 인사팀 / 이용석 총무팀 / 윤진완 구매팀 / 정상일 타워운영팀 / 박상준 콘텐츠사업팀 / 장석문 편성운영부 / 권준기 정치부 / 정유진 경제부 / 김선희 문화부 / 이성우 청주지국 / 허재원 스포츠부 / 이지은 편집1부 / 이강진 편집2부 / 김진호 그래픽팀 / 박민양 영상취재1부 / 최영욱 영상취재2부 / 김승환 영상편집부 / 정치윤 영상편집부 / 영상아카이브팀 변재철 / 서영석 보도제작국 / 김태동 기술기획팀 / 최광희 제작기술부 / 박형진 제작기술부 / 이상경 중계부 / 문석호 장비관리팀 / 정재기 사이언스 뉴스제작팀 / 최승용 사이언스 편성기획팀

입사

서원국 편성운영부, 노태영, 송보현, 연진영, 이지은 영상편집부 1.25 / 김주영, 최원석, 한동오, 한연희, 류석규, 박준수, 최성훈, 우희석 보도국, 나영채 기술국 1.16 / 심재훈, 양혜영, 정현상, 고성민, 이동은, 홍중현 사이언스TV본부 뉴스제작팀 1.9 / 이찬주 사이언스 TV본부 편성기획팀 12.14 / 나지윤 그래픽팀 11.28 / 변정현, 유경동, 이수용, 이용희 제작기술부 11.24

퇴사

신동운 부국장 심의실 12.31 / 정석영 정치부 12.26 / 김대공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12.23 / 박승숙 부국장 글로벌뉴스센터 11.30 / 이영훈 타워운영팀 11.20 / 문현철 제작기술부 11.18 / 나츠희 타워운영팀 11.15 / 김민정 영상편집부 11.14

전보

김찬석(총무팀장) 관제팀장 겸직 2012.11 / 문중선 심의실 심의위원, 박성호 글로벌뉴스센터장 12.19 / 이규일 차장대우 미래전략팀, 이성근 차장, 김명섭 마케팅팀, 최중인 차장대우, 남궁용, 지민근 마케팅2팀, 이인규 마케팅3팀, 최성호 차장 콘텐츠사업팀, 정병화, 김도원, 김현아 김중근 차장 정치부, 이승은 차장대우, 이순홍 차장대우, 박영진 차장대우, 최영주, 홍주에 경제부, 계훈희, 오동건, 이종원, 조임정, 조태현, 권민석, 이정미, 김준영 전준형 사회부, 이대건, 이교준 차장 사회2부, 이하린, 권영희 차장대우 문화부, 지순환 차장대우 스포츠부, 김선중 차장대우, 오점곤 차장, 김수진, 박희천 차장대우 국제부, 윤현숙 편집부, 김혜은 편집2부, 정철우 차장대우, 김현미 영상취재부, 양준모 차장대우 영상취재2부, 김윤석 차장, 이상은 영상편집부, 김용섭 차장 제작팀, 김웅래, 김지선 제작2팀, 오유철 차장대우, 류근민 차장 해외방송팀, 김한수 차장 인프라팀, 이한배, 이경준 차장대우, 배경호 차장 제작기술부, 이기주 차장 중계부, 강창국, 박형일 차장 기술연구소, 이강규, 이대용 기상그래픽팀, 경영관리팀 사원은 '재무회계팀'으로 일괄발령 11.28 / 박근표 미디어전략팀장, 조항운 심의팀장, 이동현 기획총괄팀장, 정진웅 정보시스템팀장, 김형근 인사팀장, 안재원 타워운영팀장, 설명수 마케팅1팀장, 전병곤 마케팅2팀장, 박기용 마케팅3팀장, 이기정 취재부국장, 김원배 취재2부국장, 김장하 편집부국장, 류제용 뉴스기획팀장, 이양현 편성운영부장, 상수중 정치부장, 강성욱 경제부장, 황선욱 사회부장, 임종열 문화부장, 박상남 스포츠부장, 이종수 국제부장, 김진호 편집부장, 이동우 편집2부장, 최재민 디지털뉴스팀장, 채문석 선거방송TF팀장, 강홍식 강릉지국장, 임수근 제작팀장, 천상규 제작2팀장, 류재복 해외방송팀장, 김영철 송출기술부장, 이성호 제작기술부장, 전용화 중계부장, 정지원웨더본부 기상그래픽팀장, 박성호, 김상우 해설위원실, 마케팅4팀 사원은 '마케팅3팀', 산업부 사원은 '경제부'로 일괄발령 12.1

4/4분기 포상 (12.30)

<특종상 금상> 김영수, 배성준, 신윤정 정치부, 오승연, 김지영, 박순표, 김잔디, 이경재, 이강진 편집2부 : 한미 FTA비준안 국회 강행처리 신속보도 진행 **<특종상 은상>** 김경록, 황혜경 광주지국 : 초등축구리그 부정선수 출진 물의 보도 **<특종상 동상>** 김웅래 제작2팀 : SK텔레콤 회원정보 유출 보도 / 고한석 사회1부, 김종완 영상취재1부, 이하린 문화부, 이상은 영상편집부, 김웅래 제작2팀 : '제일2저축은행' 투신 보도 **<4/4분기 YTN 우수프로그램상>** 차순길 편성제작팀 : 웨더본부 '날씨로 읽는 경제' **<4/4분기 공로상>** 홍보팀 / 김대원 타워운영팀 / 이동열 문화사업팀 / 정동규 편성운영부 / 정치부 홍상희, 오광식 중계부 / 오재영 그래픽팀 **<표창장>** 유주욱 총무팀, 허소영 기술연구소 12.30

